

외국인 '강속구 듀오' 앤더슨·메디나, 힘찬 시즌 준비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강속구 듀오'가 기대감 속에 2023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KIA는 올 시즌 손 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로 외국인 투수진을 구성해 마운드 싸움을 벌인다. 지난 시즌 외국인 투수의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했던 KIA는 후반기 안정감을 활약을 해줬던 선 놀린 로 토마스 파노니 대신 '강속구'를 보유한 새 얼굴로 마운드에 스피드와 강렬함을 더했다.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두 외국인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KIA 애리조나 캠프의 관심사다.

일단 그라운드 밖에서의 모습은 캠프 시작과 함께 합격점을 받았다. 캠프 첫 날을 보낸 뒤 새 팀에서의 훈련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했고, 기존에 있던 선수처럼 동료들과 어울리고 있다.

앤더슨은 "매일 한 단어씩 배우기"를 목표로 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도 즐겨먹는다. 메디나는 동료들에게 배운 '하트 손 인사'를 하며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앤더슨은 "팀 분위기가 좋다. 스트레칭 할 때부터 좋은 에너지로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다"며 "김치를 비롯해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산낙지도 먹었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추천해주면 먹어 보겠다"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팀에서 가장 다른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언어'라고 웃으면서도 이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가자, 좋아, 괜찮아요" 등을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웃게 했다.

메디나는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다. 언어가 달라서 소통은 잘 안 되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며 "매운 맛은 힘드는데 먹어 할 상황이면 먹겠다"고 웃음을 보였다.

새 외국인 선수들의 KBO리그 성공 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적응력'에서 특급 실력을 보여준 두 사람은 불펜에서도 매서움을 더해가고 있다.

앤더슨, 한국어 배우고 음식 적응

"싸울 줄 안다는게 가장 큰 무기"

메디나, 서로 격려하면서 훈련 중

"소통하며 리그·팬들과 친해질 것"

캠프 첫 투부터 불펜 피칭에 돌입했던 앤더슨과 메디나는 7일(현지시간) 두 번째 피칭을 소화했다.

36개의 공을 던진 앤더슨은 포심,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를 테스트했다. 메디나는 투심, 체인지업, 싱커, 커터, 슬라이더 등 35구를 던졌다.

앤더슨은 "비시즌부터 먹는 것, 루틴 등 세세하게 준비했다. 지금도 매주 어떤 훈련을 할 것인지 코치들과 계획하면서 시즌에 대비하고 있다"며 "예년보다는 빠르게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갔지만 시즌 내내 건강하게 선발전을 소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하고 있다. 이번 피칭은 더 매섭게 던지는 데 신경 썼고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또 "직구,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던지고 무엇보다 싸울 줄 안다는 게 나의 가장 큰 무기다. LG에서 활약한 앤드루 수아레스와 케이시 켈리 등을 통해 한국 야구에 대해 들었다. KBO리그의 응원 문화가 가장 기대가 된다. 특히 KIA팬이 가장 열정적인 응원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팀에서 많은 승리를 하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메디나는 "첫 피칭보다 좋았다. 계속 연습하면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직구, 싱커,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던지는 데 싱커가 가장 자신 있다"며 "평소 대로 새로운 리그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야구 경기 스타일은 많이 익숙해졌는데, KBO리그가 궁금해서 도전을 하게 됐다. 스페인어로 '올라'가 안녕이라는 뜻인데 '올라'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 소통하면서 새 리그, 팬들과 친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기본 좋게 두 번째 피칭을 소화한 두 선수,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포수들의 반응도 '엄지척'이었다.

앤더슨의 공을 받은 신범수는 "처음 받아봤는데 변화구 각도가 크고, 직구의 힘이 좋다. A급 투수의 모습이다. 공을 던질 줄 아는 것 같다. 본인은 오



KIA 타이거즈 손 앤더슨(맨 앞)과 아도니스 메디나(두번째)가 7일(현지 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싼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피칭 훈련을 하고 있다.

늘 변화구가 안 좋았다고 했는데 그게 안 좋은 것이면 상당히 할 것이다. 나는 안 보여줬는데 좋다"고 이야기했다.

메디나와 배터리를 이룬 한승택은 "첫 날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보였다고 들었는데 불이 좋다. 싱커 자체가 좌우 제구가 됐다.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다. 처음 할 때 변화구 제구 컨트롤 보는 편인데 꽤 괜찮다. 불에 힘이 있다. 100%는 아닌 것 같은데 공을 받고 나서 손가락이 부었다. 내가 잘 못 잡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에 힘이 없으면 손가락이 안 붓는데, 힘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wool@kwangju.co.kr

“김기훈·김도영이 키 플레이어”

KIA 김중국 감독 인터뷰

“김기훈 5선발이나 불펜 필승조”
“김도영 확실히 자리 잡아줘야”

좌완 김기훈과 내야수 김도영이 KIA 타이거즈 '전력 구상'의 키를 쥐었다.

KIA는 미국 애리조나 투싼 스포츠 콤플렉스에 스프링캠프를 꾸리고 2023시즌을 위한 밀그림을 그리고 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고민 많았던 외국인 투수 자리에 변화를 줬고 '호랑의 군단'의 새 일원이 된 손 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는 일찍 적응을 끝내고 스피드와 힘을 더해가고 있는 중이다.

김중국 감독은 지난 시즌 부족했던 외국인 투수들의 '이닝'에 주목하면서 두 선수를 지켜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두 선수의 시즌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풍성해진 좌완은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다. 박동원 사수에는 실패했지만 대신 검증된 좌완 불펜 김대유를 영입했고, 캠프 유일의 신인 좌완 윤영철도 코칭스태프 기대를 뛰어넘어 빠르게 프로에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 후반 가세한 '예비역' 김기훈이 마운드 옵션을 넓혀줬다.

일단 선발 네 자리는 사실상 확정됐다. 외국인 원투펀치에 양현종과 이의리로 네 자리가 채워지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김 감독이 보는 5선발 후보는 김기훈, 윤영철 두 좌완과 사이드암 임기영이다.

김중국 감독은 "김기훈이나 윤영철이 5선발로 확정된다면 외국인 투수들이 원투펀치로 가고 3-5번이 원순투수"라며 "임기영이 5선발로 가면 김기훈이 불펜에서 필승조로 나설 것이다. 그럴 실력과 구위를 갖추고 있다. 피칭이 좋다. 준비 잘한 것 같다. 자신감도 많이 붙어서 좋은 모습이 기대된다. 반대로 김기훈이 선발로 가면 임기영이 중간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김기훈의 모습에 따라서 KIA 마운드의 전체적인 틀이 달라지게 된다. 윤영철은 '선발'에 무게를 두고 지켜보면서 육성할 생각이다.

이번 캠프에는 빠졌지만 뱃조각 제거 수술을 받아 재활 중인 장현식은 오키나와 캠프로 불러 따뜻한 곳에서 시즌 준비를 할 방침이다. 새 좌완에 장현식까지 합류하면 KIA 불펜은 더 든든해진다.

야수진의 퍼즐 마지막 조각은 김도영이 될 전망이다. 김 감독은 "선수층을 두텁게 만드는 게 캠프의 목적이다. 내야에서는 변우혁과 김석환이 준비를 잘하고 있다. 김석환은 외야로 훈련하고 있다. 최원준이 6월에 군에서 복귀하면 외야진이



김중국 감독

좋아질 것이다"며 "지난해 이창진, 박찬호, 황대인, 류지혁이 커리어 하이로 기록했다. 이 선수들이 아직 젊으니까 기록은 있을 것이다. 키는 도영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자리 하나는 잡아줘야 한다. 작년에는 코로나 캠프 초반에 합류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 기대감을 생긴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은 3루수와 유격수를 놓고 '자리잡기'에 나선다.

김중국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유격수 자리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찬호가 앞서 있다. 수비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김도영은 3루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포수는 아직 물음표가 남는 포지션이다. 김 감독은 "포수는 수비를 먼저 생각하겠다. 타격은 기존에 있는 야수들이 도와주면 될 것 같다. 지난해 한승택은 도루 저지율 3할을 넘었고, 안정적인 선수다. 주효상은 1차 지명 선수고, 경험도 있다. 김선우는 수비, 컨택 능력이 좋고 신범수도 장점이 있다"며 "우선 한승택과 주효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김선우, 신범수 등 백업 포수도 준비를 시키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wool@kwangju.co.kr

‘킹’ 제임스, ‘전설’ 압둘자바 넘었다

통산 3만8388점 넘어
NBA 최다 득점 신기록

‘킹’ 르브론 제임스(39·LA레이커스)가 ‘전설’ 카림 압둘자바(76)를 넘어 미국프로농구(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다.

제임스는 8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 2022~2023시즌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3쿼터 종료 10.9초를 앞두고 골대 정면에서 페이드 어웨이슛을 던져 이날 득점을 36점으로 늘렸다.

이전 경기까지 개인 통산 3만8352점을 기록 중이던 제임스는 이로써 3만8388점을 쌓아 34년 동안 깨지지 않던 압둘자바의 이 부문 최다 기록(3만8387점)을 경신했다.

대기록을 쓴 제임스는 두 팔을 벌리고 천천히 코트를 가로지르며 '왕'처럼 자신만만한 눈빛으로 관중석을 훑었다.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경기장을 찾은 압둘자바가 눈가가 축축해진 제임스에게 경기구를 전달하며 축하했다.

애덤 실버 NBA 커미셔너가 기록 달성을 인종하자 제임스는 잡았던 눈물을 쏟았다.

마이크를 잡은 제임스는 "지난 20년간 나와 함께 달려온 분들께 감사하다. 그들의 열정과 희생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100만년을 살아도 오늘보다 좋은 날은 없을 것"이라고 흥분한 나머지 비속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2003~2004시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데뷔, 마이애미 히트, 레이커스에 몸담으며 20시즌 동안 4차례 팀 우승을 경험하고 챔피언결정전,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4차례씩 선정된 NBA 최고 스타 제임스는 이날 경력에 빛나는 기록을 하나 더 추가했다.

제임스는 유일 통산 1만 득점-1만 어시스트-1만 리바운드 이상, 유일 30개 전 구단 상대 경기 40득점 이상, 최다 연속(19시즌) 시즌 평균 20득점



미국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가 7일(현지시간)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의 2022~2023시즌 NBA 정규리그 경기 후반전에 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 최다 경기(이날까지 1172경기) 20점 이상 등 이미 많은 진기록을 써 내려온 터다.

제임스는 압둘자바(1969~1989년)와 똑같이 20시즌 만에 대기록을 수립했지만, 뎀 경기 기준으로 보면 더 빠르게 3만8387점 고지에 올랐다.

압둘자바는 통산 1560경기를 뛰었고, 제임스는 그보다 적은 1410경기 만에 대선배를 뛰어넘었다. 제임스는 불혹을 앞둔 나이에 또 각 팀의 젊은 에

이스틀 버금가는 경기력을 과시하고 있어 통산 4만 득점 고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8,388"이 쓰인 헤드폰을 쓰고 워밍업하며 기록 경신을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은 제임스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골대를 공략하며 득점을 쌓아나갔다.

4쿼터에 2점을 추가한 제임스는 이날 38점을 넣어 통산 3만8390득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